

이유 (사무엘상 17:17-30)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린이 사역자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오늘 우리가 17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지난 주에는 청중이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이 청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번주 강단의 제목으로 주셨다. 많은 렘넌트들 중에서 특히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는 나라에 위기가 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바란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이유가 충분하다. 오늘 서론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현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도 잘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현상이다. 이것이 블레셋의 전략이고 골리앗의 방법이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싸우지 않고 간단하게 삼키려는 그들의 전략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하는가? 지금 그 현상이 창세기 3장으로 가득찬 현상이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골리앗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한다. 자기가 마치 신인처럼 큰소리 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다.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골리앗이 가진 무기들을 보라. 그 무기들도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무서운 무기들이었다. 이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창과 방패를 대신 든 사람까지도 대동하고 있었다. 조금의 틈도 없는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었다. 창세기 6장의 모습이다.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전쟁을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덤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끄떡 못한 것이다. 두려움에 빠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걸렸고 6장에 걸렸다. 그리고 11장에 묶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약 놓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걱정 할 것 없다. 하나님은 그 때에도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속는다. 나는 부족하고 언약하다며 속는다. 맞긴 맞는데 맞지 않는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거 아시고 전도 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청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된다. 이것은 어린이, 어른, 노인, 문제 있는자, 고난중에 있는자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담기 바란다.

창세기 3장은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의식주 중심으로 살게 한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 되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법과 질서를 만들고 행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한다. 이 세상 나라에도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산다. 우리는 그런 긴 역사를 세계사라고 한다. 거기서 시대마다 나오는 영웅들을 보고 우리는 모델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즉시 영적 문제에 빠진다. 왜냐면 우리는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생기를 받고 응답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놓으셨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창 3: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답이다. 지금 막 태어난 영아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오천종족에 필요한 답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초등부 렘넌트들과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4-7학년아이들이다. 현장에 가니 고등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 현장에 가서 기도했다. 현장 흑암 세력을 꺾어 달라고, 렘넌트들에게 성령충만달라고,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과연 기도 응답이 될까? 하고 현장에 들어갔다. 아마 렘넌트들은 잘 모를 것이다. 아이들은 전도하러니까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보니까 경찰들이 그때 왔다. 왜냐면 그 주변에 이미 홍리스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와서 데리고 갔다. 우리 아이들은 마음 놓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명의 고등학생에게 하나씩 붙여줬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도 진지하게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까 한 아이가 빨리 끝나서 보니까 영접을 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왜 영접을 안했는지.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무슬림이었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있던 모슬렘 친구는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영접 안한친구가 안된다고 외쳤다. 그런데 그 애는 이미 영접 기도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봤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이유있는 사람은 영접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류하는 것을 보았다. 렘넌트들과 전도 현장에서 먼저 전도하고 말씀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항상 깨닫게 해주셨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답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답으로 현장에 숨겨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란다.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하는데 중직자들도 당연히 응답 받아야 한다. 현장은 그정도 아니라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진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 음란, 타락, 폭력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가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이다. 세상의 문화는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아무리 먹어도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문화가 우리의 후대들을 삼켜버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 풍랑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놓으셨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다. 방주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 무릎이 깨질 수도 있다. 괜찮다. 방주 안에 있다. 손을 내밀어서 이웃을 구원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주를 완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 바란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으로 세상은 성공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창세기 6장에 세상이 물로 멸망당한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대적한 사람들이 니므롯들이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우리 지역에 최악이 관영하고 많은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범죄와 최악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전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는 갈대아를 떠나서 여기에 있다. 여기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이 자리이다.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그 지역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3, 6, 11장이 종합적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러니 개인과 가정의 불신자 울무가 걸려 고통받는 것이다. 이것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친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다. 우주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

문에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땅을 사는동안 즐겁게 살자고 죄악속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을 우리도 붙잡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잡은 사람은 소수이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렘넌트들에게 렘넌트의 뜻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뜻이 찌꺼기, 쓰레기라고 하였다. 세상적인 의미는 그럴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남은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서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 집중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지금WRC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각 나라에서 렘넌트들을 움직이고 있다. 점점 많은 교회들이 동시시간대에 훈련을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야 말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 LA지역에도 8월 5일날 진행한다. 이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복음의 흐름속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속에 있기를 바란다.

2.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현장은 창세기 3, 6, 11장에 흑암에 붙들린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속이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다윗을 보기 바란다. 다윗은 이유를 찾아냈다. 사단은 지금도 여기에 언약성취를 방해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면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한다. 완전히 묶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라는 이유를 찾아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많은 이유가 있다. 학교 다니는 이유가 있고 결혼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삶의 이유는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거짓말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거짓말을 참말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사무엘의 삶을 통해 볼수 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복음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우리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미국에 왔는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교회에 왔는가? 이유가 뭐가?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된다. 그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 그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이유를 찾기 바란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렘넌트의 삶을 확인해야 한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는 여덟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언약 전달을 제대로 받은게 다윗이었다. 이새는 애국심이 있었다. 그래서 3명을 전쟁터에 보냈다. 그 뿐 아니라 막내 아들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형들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다윗에게 준 미션을 보면 보통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약이 있으므로 언약으로 양육해야 한다. 두려움을 전달하지 말고 언약을 전달하라. 그것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기준이, 이유가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육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사실은 어릴때가 기회이다. 조금더 크면 말 잘 안 듣는다. 어릴 때 될수 있으면 중요한 언약을 각인시키고 예배를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 가서도 쫓지 않는다. 다윗을 보면 전혀 쫓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면 쫓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창세기 3. 6. 11에 길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기 바란다. 렘넌트들은 현장에 데리고 나가보면 아이들의 성향을 보게 된다.

성격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어느날 눈이 열리니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름대로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작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블레셋 현장에 가면 지금 전쟁을 위해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는 키가 여섯구빗 한뼘, 즉 약 3미터 정도 되었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없었으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나 나갈만큼 무거웠으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다. 육신 싸움의 전문가가 이미 우리의 현장에 있다. 그러니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겁먹고 싸우기 전에 쳐 버린다. 이스라엘은 언약이 언약되지 않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도 언약이 언약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살게 된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는 것은 불신자처럼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명자의 아들, 이새의 아들들을 보라. 큰 아들이름 엘리압이 나왔다. 그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 동생 다윗이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는가?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를 발하면서 꾸짖었다. 마음이 교만하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면서.

현장은 다 무너져 있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그중에 사명자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그의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은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까지 내걸었을 정도였다. 세상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나라에 백성이 사단의 나라에 속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청중하여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 하시도록 믿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언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서 내게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다. 내가 믿던 안 믿은 하나님은 약속 하시 데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여 237나라 5000종족에 증인으로 세우셨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를 기억하셔야 한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기고만장해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시할 만큼 교만한 상태였다. 완전히 창3장, 6장 11장에 길들여진 니므롯과 같은 장수였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이유... 우리에게는 창 3장 창 6장 11장으로 살아왔기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 기도, 전도의 시간속에 주의 말씀을 청중하며 나를 운유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릴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위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예배, 기도, 전도의 축복속에 넣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실하신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월, 매주, 매일 듣게 하고 있다. 저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의 흐름속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안내해주시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여 현장을 살려야 할 이유를 찾는 언약의 파수망대가 되어 24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